

다산포럼



임철순  
데일리임팩트 주필

대한민국이 하면 남는다. 한국인들이 하면 남는다. 어디에 남나? 전 세계인의 인상과 기억과 언어에, 그리고 각종 미디어와 SNS에 남는다. 그러다 보면 역사가 남게 된다. 왜 남나? 대한민국은 이미 세계적으로 큰 나라요, 문화의 발신국이며 유행의 선도자이기 때문이다. 농담이나 빈말이 아니다. 국토는 작고 지구상의 유일한 분단 국가이지만 우리나라의 경제 규모나 문화생활 수준의 영향력은 우리가 스스로 아는 것 이상으로 크고 넓다.

이런 영향력을 앞장서 생산하고 전파하는 것은 단연 대중문화다. 이른바 K컬처라는 우리의 대중문화는 세계의 젊은이들을 중심으로 한국과 한국인, 한국 문화와 한글, 한국어에 대한 호기심과 호감을 불러일으켰고, 우리의 국력을 키우는 문화력의 바탕이 되었다. 경제력은 이해(利害)가 엇갈리는 종속·비종속의 갈등을 유발하지만, 문화력은 일반적으로 친밀도와 선한 영향력을 높여준다.

외국인들은 BTS의 노래를 통해 삶의 용기와 사랑의 의미, 꿈과 현실에 대해 생각하게 됐고, 아카데미상을

긍정의 우리말이 세계어가 되게

받은 영화 '기생충'을 통해 한국 사회의 비밀을 내 비밀로 받아들였다. 그 영화에 나온 짜파구리에 대한 궁금증도 높아졌다.

특히 '기생충'의 무대인 반지하는 최근에 세삼 주목을 받았다. 뉴욕타임스는 서울의 집중호우 피해를 보도하면서 받음을 그대로 옮겨 'banjiha'라고 표기했다. 한국어 특수성이 낳은 주거 형태인 반지하를 구조적으로 이해하기는 어렵다. 서울시는 침수 피해 우려가 큰 지하·반지하를 주거 용도로 쓰지 못하게 하는 내용의 안전 대책을 지난 10일 발표했지만 반지하 없애기는 쉬운 일이 아니다. 완전히 사라지기까지 'banjiha'는 한국 사회의 여러 얼굴 중 하나로 남을 수밖에 없다.

우리는 그동안 언어를 통해 어떤 얼굴을 보여 주었나. '남들을 무례하게 하대하는 노년층의 사람'을 지칭하는 단어였다가 그 대상이 확장된 쪼대라는 말을 반지하와 마찬가지로 'kkondae'라고 발음 그대로 표기하는 외국 사례가 늘고 있다. 영문 위키백과에도 설명 문서가 있다.

'재벌'이나 '갑질'도 해외에 잘 알려진 우리말이다. 두 단어는 거의 항상 붙어 다닌다. 그 이전에 국제화 세계화한 대표적 우리말로로는 '빨리빨리'를 들 수 있다. 한국인의 특성을 잘 알려 주는 말이다. 최근 '국제화 세계화'가 가장 확실하게 이루어진 말은 'aeronambul'이다. 외신은 지난해 4·7 재보선 결과를 보도하면서 더불어민주당의 참패 이유로 '내로남불'(내가 하면 로맨스, 남이 하면 불륜)을 꼽았다. 한글 고유어와 영어권

의 앞 글자, 한자의 우리말 발음이 유기적으로 통합된 '내로남불'은 사자성어라는 착각까지 일으키게 하는 명 단어이다.

그러나 생각해 보자. 지금까지 우리가 세계에 발신한 '국제적 언어' 중 부정적이고 반사회적인 문제를 드러내는 말이 아닌 게 있었는가. 언어는 시대상의 반영이며 유행어나 은어는 그 사회의 비밀을 풀어주는 열쇠와 같다. 그러니까 세계에 비친 한국 사회는 그 정도 수준에 불과한 것이다. 사회 자체가 성숙하고 건전하지 못하면 언어에 그대로 반영되며 거짓말을 할수록 불건전과 미성숙이 두드러질 뿐이다.

언어에도 이와 비슷한 'cash mob'이라는 말이 있고 '돈줄내기' 자체는 그다지 좋은 성어(成語)로 보이지도 않지만, 이런 긍정의 언어가 세계화될 수는 없는 것일까. 세상을 아름답고 살 만하게 바꾸는 긍정과 배려의 우리말이 세계의 언어로 번져나갔으면 좋겠다. 그러려면 당연히 사회 전체가 보다 성숙해져야 하며 누구나 감동할 만한 기부와 배려의 미담도 많아야 한다. 어렵고 요원한 일이지만, 우선은 찬박하고 교양 없고 상스러운 말로 상대를 공격하고 나와 남의 인격을 아울러 말살하는 정치권의 언어만이라도 좀 정화됐으면 좋겠다.

청춘 특특



강유나  
광주대 테리어디자인학과 2년

광주에선 최근 신세계그룹과 현대백화점그룹이 잇따라 발표한 복합쇼핑몰 추진이 화두다. 언론은 연일 타당성 문제와 시민·상인들의 찬반 의견에 대해 보도하고 있다. 학교 선후배, 친구들과 대화방 주제로도 심심치 않게 올라오고 있다. 그만큼 시민들의 관심이 높다.

현재 나는 테리어디자인학과에서 공부하며 디자인과 관련한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하고 있다. 올해 광주대와 국립 아시아문화전당이 협약을 맺은 덕분에 학우들과 함께 '반디 산책' 봉사활동에도 참여하고 있다.

광주의 대표적인 문화 예술 공간으로 손꼽히는 것이 국립 아시아문화전당이다. 봉사활동을 비롯해 국립 아시아문화전당에서 개최되는 전시를 작가들과 함께

광주에는 복합 예술 공간도 부족합니다

비하는 등 디자인 전공자에게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는 확신으로 열정적으로 임하고 있다.

본격적으로 시작되지 않은 전시장에 들어섰을 때, 그동안 경험하지 못한 감정과 전시를 위해 준비하고 있는 작가들을 직접 만나는 시간은 매우 뜻깊다. 덕분에 대학에서 공부하며 생기는 많은 기회를 디딤돌 삼아 끊임없이 성장하고 있다.

하지만 항상 아쉬움이 남는다. 현재 광주에 거주하며 찾는 문화예술 공간은 국립 아시아문화전당을 비롯해 우제길 미술관, 광주 시립미술관, 무등현대미술관 등이다. 실습하고 체험하고, 공부할 수 있는 문화예술 공간은 모두 찾아 탐방하고 있다.

학교에서 광주문화재단과 광주시 5개 자치구, 한국문화예술위원회 등과 문화예술 교육 강화를 위한 협약을 체결해 체험 프로그램과 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여건이 갖춰져 있다. 문화예술을 주제로 심포지엄도 개최하며 학생들에게 다양한 경험을 쌓을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하지만 서울을 포함한 다른 지역의 전시관을 찾아가는 시간이 더욱더 많은 것이 현실이다. 광주는 여전히 미술관 등의 전시 문화 공간이 부족하며 문화예술 분야의 현장 체험 기회가 한정되어 있다.

서두에서 언급한 것처럼 광주에는 현재 복합쇼핑몰이 큰 관심거리다. 복합쇼핑몰도 좋지만, 복합 문화예술 공간도 더 많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지역 한 언론사에서 조사해 기사화한 내용을 들여다 보면 '노점 광주'라고 말하는 이들의 대표적인 지적 사항으로 첫 번째가 문화도시라면서도 랜드마크가 없다는 것이고, 두 번째와 세 번째는 관광지와 문화생활 시설 부족이라고 한다. 종합해 보면 문화적인 인프라가 부족해 여가 시간을 효율적으로 보낼 수 없다는 내용이다. 복합쇼핑몰 유치를 추진하고 있는 대기업들은 다양한 방식의 문화와 여가를 즐길 수 있는 공간을 함께 만들겠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보다 전문적인 복합 예술 공간이 절실하다. 오락 공간만이 아닌 문화예술인을 양성하고 지식을 쌓을 수 있는 공간 말이다. 나는 테리어 디자이너나 3D-CAD 도면 전문가, 디자인 마케팅, 설계업자 등 하고 싶은 것도 되고 싶은 것도 많은 학생이다. 꿈이 많은 만큼 원하는 이상향에 가까워지기 위해서 더 큰 세상이 필요함을 느끼고 있다. 대학생으로서 '문화예술의 도시' 빛고를 광주에서 계속 공부하고 싶고, 거주하고 싶다. 이에 광주에 더 많은 걸 경험하고 영감을 얻을 수 있는 문화예술 공간이 생겼으면 하는 바람이다.

기고



조경  
광주여대 반려동물보건학과 겸임교수

광주에는 동물복지 향상을 위해 2001년 민관협력 사업으로 전남대학교 수의대학의 작은 터를 할애받아 20년 넘게 운영되고 있는 '유기 동물보호소'가 있다. 그런데 관(광주광역시)에서 직접 운영하기에는 주무부서 공무원의 자질이나 열정, 역량, 전문성 등이 시민이나 동물권의 눈높이에 턱없이 못 미친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현재는 북구청에서 광주시청으로 주관부서를 옮겨 동물권 단체에서 위탁 운영하고 있다. 이와 관련 필자는 동물보호소의 비정상적인 운영에 대해 몇 가지 지적하고자 한다.

가장 큰 문제점은 현재 위탁 운영을 하고 있는 동물단체가 적극적인 운영을 회피하고 주도권을 근로자들에게 부여하고 있다는 것이다. 운영총괄과 근로자들의 관리 감독을 책임을 져야 할 '소장'의 직책마저 행정직 여직원에게 맡기고 있는 형식적인 행태만 봐도 얼마나 무책임한 운영인지 방증한다. 편법이 난무하는 광주 동물보호소에 대한 관리 감독에 소홀한 시청 주무부서를 시민단체에서 직무 유기로 형사고발하는 단계까지

광주동물보호소 운영 정상화해야

이르렀다.

유기 동물보호소는 버림받은 반려동물들의 목숨을 좌우하는 슬프고도 엄중한 역할을 한다. 그러한 공공기관의 근로자들을 자격 무관, 경험 무관, 학력 무관 등 아무런 자격 조건 없이 채용하여 '사양 관리사'라는 직책을 부여한다. 그러나 직원들이 하는 업무의 대부분은 사육장 청소와 위생 관리이다. 다시 말하면 전문 지식이 전무한 단순 노무 직원들이 동물들의 사양 관리를 하고 있는 셈이다. 청소직도 전문직이고 충분히 자격 조건이 요구될 수 있다. 하지만 동물보호소라는 곳은 동물들의 생명이 달린 곳이다.

아울러 민감한 사안이라서 법으로 엄격히 규제되고 있는 '안락사'마저도 직원들의 주도 하에 이뤄지고 있을 뿐 아니라 입양 상담, 회계 업무, 진료 실 업무까지 수의사 한 명을 제외하고는 어느 한 사람 전문 인력이라고는 찾아볼 수가 없다. 과거 광주 동물보호소에서 일어난 직원들의 동물 학대 사건들이 이와 무관하지 않다고 생각한다.

또한 운영 실적과 예산 집행 내역을 홈페이지에 공개해야 되지만 이를 지키지 않고 있으며 시민의 의견을 수렴하는 '자유게시판'도 폐지하고 '비공개 민원 게시판'만 운영하고 있는 것도 문제다. 시민의 입을 막고 눈을 피하고자 전사 부서는 자원봉사자를 받는 것조차 제한하고 있으니 얼마나 폐쇄적 운영인가.

그곳 전사 직원들의 급여는 수당을 포함하여 월 260만 원+수당. 광주시 생활임금이 210만 원대인 것에 비

하면 적은 급여는 아닌 것 같다. 필자는 지금 그들의 급여가 많다고 주장하는 것이 아니다, 여기서 깊이 들여다 봐야 할 부분은 과거 근무자의 수가 지금의 절반이고 급여가 훨씬 적었을 2017년도에 비추어 볼 때, 보호 중인 두수는 비슷하거나 오히려 줄었음에도 불구하고 불과 3년 만에 직원 수는 두 배 이상 증가했고 급여 역시 60%가량 인상되었다는 점이다. 그런 이유로 7억 원의 연간 예산 80%가 인건비로 쓰인다는 것에 의문을 갖는다.

2020년 말 기준 전국의 동물보호센터는 280개소이며 민간 위탁(228개소), 지자체 직영(47개소), 시설 위탁(5개소) 등으로 운영되고 있다. 동물복지에 관심이 많아지고 유기 동물이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는 시대적 요구에 따라 유기 동물 보호소가 이만큼 생겨난 것은 고무적인 일이지만 지금은 그 운영에 있어 적법성과 효율성, 세금의 낭비가 있는지를 감시해야 할 때이다.

최근에 일어난 타 지역 동물보호소에서의 개식용 거래, 불법 안락사, 참혹한 학대 등 끊이지 않는 실태를 정부가 나서서 중간 점검하고 단속하여 할 시점에 도달한 것이다.

현재의 위수탁 단체가 운영을 정상적으로 하지 못한다면 당장이라도 시에서 직영을 하는 것이 합당한 일이다. 광주시는 더 이상 허울뿐인 위탁 운영에 숨지 말고 직접 운영을 통해 폐쇄적이고 비정상적인 광주 동물보호소를 재건해 주기를 간곡히 바란다.

社說

갈등·분쟁 속출 지역주택조합 감독 강화해야

광주 지역주택조합이 비위 혐의로 또다시 수사선상에 올랐다. 광주서부경찰은 동구 'THE50 센트럴 금동 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회 대표 조모 씨와 업무대행사 대표 유모 씨를 각각 사기 혐의로 입건, 조사 중이다. 경찰은 조합 집행부가 사업 대상지 토지 확보율이 19.26%에 불과한데도 82~85%를 확보했다고 속여 조합원을 끌어모았다는 의혹을 집중 조사하고 있다.

실제 이 사업은 금동 일대 1만 4000㎡ 부지에 지상 39층 아파트 394세대를 짓기로 하고 조합원 280여 명으로부터 1000만~3000여 만 원의 계약금을 받았으나 저조한 토지 확보율로 조합 설립 인가조차 받지 못한 상태다. 이 과정에서 조합원이 년 계약금 63억 원 가운데 일부를 정해진 절차를 거치지 않고 사용했다는 의혹도 받고 있다. 감독 기관인 동구청도 해당 조합을 주택법 위반 혐의로 경찰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한 상태다.

풍년에도 애타는 농심, 쌀값 폭락 근본 대책을

벼 수확기가 코앞에 다가왔지만 들녘에는 풍년이 대신 한숨 소리만 가득하다. 산지 쌀값이 45년 만에 최대 폭으로 하락하면서 농민들이 망연자실하고 있는 것이다. 이에 농민단체들은 어제 서울역 앞과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정부의 대책 마련을 요구하는 시위에 나섰다.

지난 15일 전국 산지 쌀값은 20kg당 4만 2522원을 기록했다. 이는 1년 전의 5만 5630원보다 23.6%나 폭락한 것이다. 낙폭으로는 45년 만에 최대치이고, 가격도 2018년 3월 이후 4년 5개월 만에 가장 낮은 수준이다. 이러한 쌀값 급락은 공급 과잉 때문이다. 지난해 말 기준 전국 농협이 보유 중인 재고 쌀은 42만 8000톤으로, 전년보다 80% 이상 늘었다. 반면 쌀 수요는 갈수록 줄고 있다.

더 큰 문제는 올해도 쌀 작황이 좋아 생산량이 지난해와 비슷할 것으로 예상된다는 점이다. 재고가 가득 쌓인 상황에서 쌀값이 떨어지면 쌀값 하락세가 더 커질 수 있다. 농민들 사이에선 생산 비용은 크게

광산구 '송정리퍼파크' 지역주택조합 사업도 전 조합 집행부가 부지 내 교회 측과 맺은 '이식 계약'을 둘러싸고 교회 측과 조합원들 간 마찰을 빚고 있다. 신축 비용 등 교회 측 요구 사항을 들어주다 보니 조합원 부담이 커진 데 따른 것이다. 광주에서 지역주택조합이 문제가 된 것은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지난 1월 이중 분양 사기 사건으로 지난주택조합 업무대행사 회장 등이 징역형을 선고받기도 했다.

광주시는 지역주택조합을 둘러싼 갈등과 분쟁이 빈발하자 2년 전 개선 방안을 내놔왔으나 현장에서는 잘 지켜지지 않고 있다. 지역주택조합 사업이 추진되다 문제가 생기면 결국 피해는 분담금을 낸 무주택 서민 조합원에게 돌아간다. 정부와 자치단체는 정식 조합 인가 전 조합원 모집 및 토지 매수 등 추진위 단계에서부터 엄격한 법적 통제와 감독을 받도록 하는 등 제도 개선과 함께 감독을 강화해야 할 것이다.

늘어났는데 쌀값은 폭락하니 공들인 농사가 수포로 돌아갈 수 있다는 우려가 확산되고 있다.

여기에는 정부의 미온적인 뒷북 대처가 한몫하고 있다. 정부는 올해 세 차례 '쌀 시장 격리'를 시행했지만 적기를 놓치는 바람에 폭락 사태를 막지 못했다. 이런 상황에서 애지중지 키운 벼를 갈아엎을 수밖에 없는 농심을 헤아려 쌀값 추가 폭락만을 막아야 한다. 이를 위해 우선 추석 이전에 10만 톤가량의 추가 격리가 필요하다.

아울러 정부는 쌀질 처방에서 벗어나 쌀값 안정을 위한 근본적인 대책 마련을 서둘러야 한다. 무엇보다 법에 규정된 시장 격리 조건이 충족되면 정부가 의무적으로 매입하는 '자동 시장 격리제'의 법제화가 필요하다. 현실과 동떨어진 쌀 생산 관련 통계의 정확도도 높여야 한다. 공급 과잉을 해소하려면 쌀 재배 면적 감축이 불가피한 만큼 농민 소득 보전책과 함께 대체 작물 전환도 고민해야 할 것이다.

無等鼓

지난 28일 개최된 민주당 전당대회에서 광주의 송갑석 의원이 호남 단일 주자로 최고위원 도전에 나섰지만 간발의 차이(1.58%p)로 분루를 삼켰다. 전북의 한병도 의원, 전남의 서삼석 의원에 이어 21대 국회에서 개최된 전대에서 연속적으로 호남 주자들의 지도부 진출이 무산된 것이다. 호남이 진보 진영의 심장이자 민주당의 근간이라는 점에서 정치적 파장은 만만치 않을 전망이다.

정치권에선 '어대명' (어차피 대표는 이재명)의 대세론 속에서 송 의원의 비명(비이재명) 주자로 분류되면서 이재명 대표 팬담충으로 부터 배제 투표를 당한 것을 석패의 주요 원인으로 꼽는다. 실제로 송 의원은 이번 전대 기간 동안 '수박' (결과 속이 다르다 는 은어)이라는 정치적 좌표가 찍혀 조직화된 비난을 받았다. 반면 일부 친명(친 이재명) 최고위원 주자들은 이재명 대표 팬담충의 나눠주기 투표에 힘입어 지도부에 진출했다는 평가도 나온다. 이전의 두 차례 전당대회에 비해 낮은 투표율(37.09%)과 저조한 호남권 관리당원의 참여(35.2%) 역시 패배의 요인으로 거론

된다.

하지만 본질적인 문제는 호남 정치권 자체에 있다는 지적이다. 지난 21대 총선에서 호남 정치권은 세력 및 세대교체를 이뤘지만 호남 민심의 눈높이에 부응하는 정치력을 보여 주지 못했다는 것이다. 현장과 이슈에서 민생을 꺼안는 진정성과 정치적 비전을 이끌어 내는 치열함이 부족했다는 비판도 제기된다. 이는 정치적 인지도 저하로 이어졌고 지도부 진입 실패라는 결과로 나타났다는 분석이다.

호남 정치권이 제대로 소통·결집하지 못한 것도 주요 요인으로 꼽힌다.

각자도생의 정치적 태

함이 호남 정치권의 퇴행과 변방화를 가속시켰다는 것이다. 이젠 역사가 된 김대중 전 대통령(DJ)은 자신의 정치 인생을 '도전과 응전의 연속'이라고 했다. 군부 독재 정권의 시련과 압박에 결연히 맞선 '도전과 응전'은 그를 시대의 지도자로 부상시켰다. 이런 측면에서 혹독한 시련의 시기를 맞고 있는 호남 정치권에 송갑석 의원의 석패가 새로운 도전과 응전의 출발점이 되기를 기대해 본다. /임동욱 선임기자·이사

도전과 응전

光州日報		The Kwangju Ilbo	
회장·발행인 金汝松	논설실장 程厚植	편집총괄국장 崔宰豪	
1952년 4월 20일 創社 1980년 11월 29일 등록번호 광주기 1(일간)		우) 61482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24	
대표전화 222-8111 / 220-0551(지사 자국(구독 신청 배달 안내)) 광고문의 062-227-9600			
편집국인내 (대표 FAX 222-4918)	경 영 지 원 국 220-0515	문 화 사 업 국 220-0541	
편 집 부 220-0649	문 화 부 220-0661	(FAX 222-8005) (FAX 222-0195)	
정 치 부 220-0652	예 향 부 220-0692	기 획 관 리 국 227-9600	
경 제 부 220-0663	사 진 부 220-0693	업 무 국 220-0551	
사 회 부 220-0642	체 육 부 220-0621	(FAX 220-0195) (FAX 222-0195)	
전 남 본 부 220-0680		다 자 인 실 220-0536	
		서 울 지 사 02-773-9331	
		(FAX 02-773-9335)	
		※구독료 월정 10,000원 1부 500원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